

# 잇단 어린이집 사고...광주·전남도 불안

### 아동학대도 매년 급증 불구 23곳은 CCTV 설치도 안돼 폭염 속 방치 등 잇을만하면 반복...근본 대책 마련 시급

낮잠을 자지않는 이유로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하고 폭염 속 4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 갇혀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산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아동학대 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43건, 2017년 1027건, 2018년 6월 말까지 682건에 달한다. 2017년 경우 전년도(543건) 대비 484건 (89.1%)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2016년

444건, 2017년 804건, 2018년 6월 말까지 580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말(181일)까지 하루 3.2건 꼴로 지난해(2.2건)보다 하루평균 1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아동학대는 1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6년 7월 29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치원에선 4세 어린이가 불별 더위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 있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해당 어린이는 6살이 됐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아이를 돌보느라 생활고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 통학버스 안전대책

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6개월 후인 지난해 2월 7일 광양에서는 7세 어린이집 원생이 30여분 동안 통학차량에 갇힌 채 방치됐다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지난 17일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던 4세 여아가 통학승차 뒷좌석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 질식사한 채로 발견됐다.

통학차량 사고 외에도 어린이집 내 학대 사건이 잇달아 하면 반복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관련 학대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이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감시·방지 장치인 CC-TV조차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수십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광주·전남 어린이집 중 23곳이 CC-TV를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

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3만9493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CC-TV가 단 1대도 없는 어린이집은 365곳으로 나타났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순이다.

그나마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조차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부모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시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차지는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장은 "최근 아동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초기 아동학대 발견률이 늘고 있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며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 서남해안 낚싯배·어선 안전사고 빈발

### 이달들어 1명 사망·61명 부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서남해안에서 낚싯배와 어선들이 줄을 잇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여수해양경찰 등 따르면 7월 들어 낚싯배 충돌 등 선박안전사고로 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 지난해 7~8월 두 달동안 전남 해안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해경은 폭염으로 낚시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실제 22일 오후 2시 12분께에는 여수시 백야도 인근 해상에서 4.2t 낚시 어선 C호가 표류한다는 신고가 해경상황실에 접수됐다. 11명이 탑승한 C호는 갑자기 기관고장으로 멈춰서면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전에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180m 해상에서 연안 복합어선 C호(4.9t)와 낚싯배 H호(9.7t)가 충돌했다. C호에는 승선원 3명, H호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H호에

타고 있던 김모(49)씨가 다쳤다. 해경조사 결과 C호 선장(48)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72%)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고흥군 도양읍 앞 바다에서 0.6t 소형어선과 9.77t 낚싯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70대 선장의 부인이 숨졌다. 17일에는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해상에서 3t 낚싯배와 4t 어선이 충돌해 모두 8명이 골절상과 타박상 등 다쳤다.

졸음운항에 따른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여수시 화정면 남도 앞 해상에서 9급 낚시 어선이 좌초해 낚시꾼 20명이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는데, 낚싯배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바위와 충돌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장들이 노령화되면서 주로 경험에 의존해 레이더를 잘 보지 않고 운항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새벽출항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항으로 사고를 내는 사례도 많은 만큼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 포트홀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부 배상 책임

### 법원 "운전자 과실 고려 30%"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몰다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인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던 중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cm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운석벽을 들이

쳐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승용차는 물론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2일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발이 운행이 금지된 도로를 운행한 점,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의 진로는? 2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광주시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 스팸문자 수십만건 발송...유심칩 불법 유통 일당 적발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USIM)을 사들여 스팸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모(46)씨를 구속하고 유심 모집책과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 명의로 대표 선불유심칩 238개를 불법 개통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문자메시지 44만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급전 필요하신 분, 유심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건당 2만~3만원에 개인 정보를 넘겨받고 유심 개통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들은 타인의 정보로 개통한 유심을 팔 때는 건당 11만원까지 받고 광고 희망자에게 넘겼으며, 이렇게 유통된 휴대전화 번호로 온라인 카지노,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을 광고하는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

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한해에만 도박·음란 사이트 광고 스팸문자가 30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는 물론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더운 날씨에 미술관 관람하다 부채 작품 예뻐서 '슬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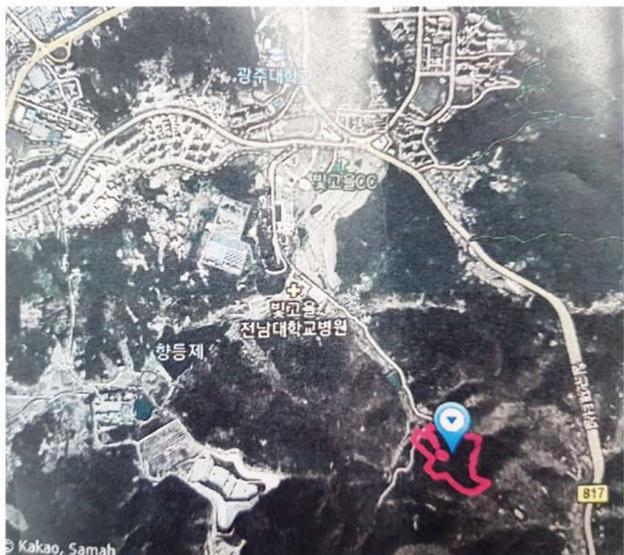
○...폭염을 견디지 못한 50대 여성이 광주의 한 미술관에서 한국화 작가의 부채 작품을 몰래 가져갔다가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52)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금북미술관에서 전시중인 B(36)작가의 20만원 상당 부채를 훔쳤다는 것.

○...CC-TV수사기법으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더운 날씨에 미술관 관람을 하던 중 부채가 예뻐 순간 욕심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